

WEBVTT

00:00:30.792 --> 00:00:32.019

안녕하십니까?

00:00:32.119 --> 00:00:34.149

인문학 살롱의 유혜선입니다.

00:00:34.249 --> 00:00:38.789

이번 시간에는 사랑을 꿈꾸게
하는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

00:00:38.889 --> 00:00:40.731

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.

00:00:40.831 --> 00:00:48.282

이 사랑이라는 주제는
우리 모든 인간사의 테마가 돼 있죠.

00:00:48.382 --> 00:00:52.160

우리 인간사의 영원한 숙제이고
또 중요한 이슈이고요.

00:00:52.260 --> 00:00:55.364

또 우리 모든 인간사
삶의 희로애락에

00:00:55.538 --> 00:00:58.817

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
역사라고 할 수 있죠.

00:00:58.917 --> 00:01:02.624

그리고 많은 예술가가
사랑을 주제로 해서

00:01:02.724 --> 00:01:08.692

테마와 예술 활동이 피게 되는데
사랑이 그만큼 우리 삶에서

00:01:08.792 --> 00:01:11.916

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
이렇게 생각합니다.

00:01:12.016 --> 00:01:17.118

저는 사랑을 생각하면 우선
마르크 샤갈의 산책이라는

00:01:17.218 --> 00:01:18.327

이 그림이 떠오릅니다.

00:01:18.427 --> 00:01:19.530

제일 먼저 떠오릅니다.

00:01:19.630 --> 00:01:20.811

여러분, 어떠세요?

00:01:20.911 --> 00:01:23.892

사랑,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.

00:01:23.992 --> 00:01:27.674

내가 좋아하는 첫사랑에게
고백을 받았다

00:01:27.774 --> 00:01:31.248
또는 첫 키스를 했다
또 결혼을 하고 싶은 남자로부터

00:01:31.348 --> 00:01:33.746
프리포즈를 받았다
또 첫날밤을 지냈다.

00:01:33.846 --> 00:01:34.927
이때는 어떻게 해요?

00:01:35.027 --> 00:01:39.629
사랑에 대한 충만, *ecstasy*
이걸 환희라고 그러죠.

00:01:39.729 --> 00:01:43.305
이런 환희의 순간에는
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

00:01:43.405 --> 00:01:45.377
무중력 상태에 들어가잖아요.

00:01:45.477 --> 00:01:49.066
그래서 니체는 우리 삶의
가장 궁극적인 목표는

00:01:49.166 --> 00:01:50.742
이런 환희에 도달하는 것이다.

00:01:50.842 --> 00:01:52.242
이것이 바로 행복이다.

00:01:52.342 --> 00:01:54.985
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
이런 극적인

00:01:55.085 --> 00:01:57.195
환희의 순간이 몇 번이나 되나요?

00:01:58.261 --> 00:02:03.455
이런 사랑의 힘을 맛보기 위해서
우리는 수많은 고통과 노력과

00:02:03.555 --> 00:02:09.286
절망 속에서 싸우고 고뇌하고
인내하고 이렇게 하는데요.

00:02:09.386 --> 00:02:14.314
그래서 결국 우리는 사랑을 꿈꾸게
하는 힘에 의해서 살아간다.

00:02:14.414 --> 00:02:18.617
그래서 마르크 샤갈이
이야기했듯이 사랑이라는 것은

00:02:18.717 --> 00:02:23.334
함께 있으면 몸도 마음도
가벼워져서 중력조차 없어지는

00:02:23.434 --> 00:02:24.347
그런 느낌이다.

00:02:24.484 --> 00:02:28.150
그래서 샤갈을 제가 좋아하는
이유는 우리 인생에서

00:02:28.250 --> 00:02:32.977
삶과 예술의 의미를 주는
단 하나의 색을 택하라고 하면

00:02:33.115 --> 00:02:36.817
바로 이것이 사랑의 색이라고
이렇게 이야기합니다.

00:02:36.917 --> 00:02:41.903
이 샤갈은 러시아의
빈농에서 태어났죠.

00:02:42.050 --> 00:02:46.367
그렇지만 프랑스로 와서
그림을 배우기 시작하면서

00:02:46.467 --> 00:02:51.264
자기의 예술 활동, 가난하고
배고픈 이런 자기의 내면세계를

00:02:51.364 --> 00:02:55.398
환상적으로 꿈꾸듯이 이렇게
화려한 색채로 펼쳐낸

00:02:55.565 --> 00:02:57.618
아주 유명한 작가인데요.

00:02:57.718 --> 00:03:01.930
피카소와 함께 20세기의
세계적인 작가

00:03:02.100 --> 00:03:06.565
그다음에 앙리 마티스와
함께 색채의 마술사라는

00:03:06.665 --> 00:03:09.429
칭송을 들을 만큼
20세기를 풍미하는

00:03:09.529 --> 00:03:12.116
최고의 화가가 아닐까
하는 생각이 듭니다.

00:03:12.216 --> 00:03:18.639
그런데 대부분 예술가가
또 화가가 사랑을 주제로 해서

00:03:18.812 --> 00:03:23.456
그림을 많이 그립니다마는
사랑의 힘이 거부되느냐,

00:03:23.556 --> 00:03:27.094
선택되느냐에 따라서 이들의

운명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.

00:03:27.194 --> 00:03:33.317
우리 사랑을 주제로 했던 고희나
고갱 또 현대 예술가 중에서

00:03:33.417 --> 00:03:38.649
잭슨 폴록 같은 사람은
사랑과 고독과 방황 속에서

00:03:38.749 --> 00:03:42.075
결국은 사랑을 포기해 버리는 거죠.

00:03:42.175 --> 00:03:48.404
사랑을 포기하고 그 고독 속에서
요절한 비운의 천재들이라면

00:03:48.504 --> 00:03:53.781
반대로 샤갈이라든지 피카소
같은 이 화가들은

00:03:53.930 --> 00:03:57.548
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을
선택했던 사람입니다.

00:03:57.648 --> 00:04:00.775
사랑을 포기하느냐, 사랑을
선택하느냐에 따라서

00:04:00.875 --> 00:04:03.946
그들의 삶이 영원히
행복하게 사느냐.

00:04:04.046 --> 00:04:07.349
또는 비운의 천재이기는
하지만 요절하느냐는

00:04:07.507 --> 00:04:10.721
그런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게
나타나고 있는데요.

00:04:10.821 --> 00:04:14.239
그 정도로 사랑의 힘이
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

00:04:14.374 --> 00:04:19.273
그래서 색채의 마술사 샤갈과
피카소는 일생 동안

00:04:19.373 --> 00:04:21.088
정말 마음껏 사랑하고요.

00:04:21.188 --> 00:04:25.726
또 사랑한 것만큼 그 사랑을
표현한 예술적 대가로도

00:04:25.897 --> 00:04:29.699
아주 풍부하고 부자로
일생을 누리면서 살다간

00:04:29.799 --> 00:04:33.867

그런 풍운의 예술가들이라고
할 수 있겠습니다.

00:04:33.967 --> 00:04:38.169
그 정도로 사랑을 즐기다 간
그런 예술가들이라고 할 수 있죠.

00:04:39.201 --> 00:04:41.920
또 사랑의 또 다른 이름,
또 다른 모습의

00:04:42.020 --> 00:04:45.263
클림트의 사랑을 볼 수 있는데요.

00:04:45.363 --> 00:04:48.881
아주 관능의 화가라고
이렇게 이야기하죠.

00:04:48.981 --> 00:04:53.101
클림트는 금세공업자의
집안에서 태어났어요.

00:04:53.201 --> 00:04:57.802
모두 금을 다루는 그런
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

00:04:57.966 --> 00:05:02.515
금을 다루는 솜씨가 굉장히
세련되고 아주 능숙하죠.

00:05:02.615 --> 00:05:07.195
그래서 물감 대신에 금가루를 가지고
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.

00:05:07.295 --> 00:05:12.570
처음에 이 사람의 그림이 나왔을 때
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.

00:05:12.670 --> 00:05:14.707
이게 뭐야?
이게 무슨 그림이야?

00:05:14.807 --> 00:05:18.792
이렇게 별로 주목을 받지
못하다가 이 당시에

00:05:18.901 --> 00:05:26.471
신흥 갑부의 귀부인들이
돈은 있고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

00:05:26.595 --> 00:05:30.820
꾸미는 거에 비해서
자기 자신의 욕망, 에로티시즘

00:05:30.920 --> 00:05:37.994
또는 관능적인 매력 이런 거를
잘 발산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

00:05:38.094 --> 00:05:43.465
반대급부로 클림트의 사랑을 보고
굉장히 환상에 빠집니다.

00:05:43.565 --> 00:05:48.657

그래서 많은 귀부인이 클림트의 그림을 사들이기 시작해요.

00:05:48.757 --> 00:05:54.703

그때부터 클림트의 그림이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호가되면서

00:05:54.763 --> 00:05:58.182

세상에서 유명한 화가로 등단하기 시작했는데요.

00:05:58.282 --> 00:06:01.151

마찬가지로 구스타브 클림트에게는

00:06:01.251 --> 00:06:04.922

이 화가를 지원해 주는 뮤즈라고 그러죠.

00:06:05.022 --> 00:06:08.136

여인들, 모델이면서 지원해 줬던

00:06:08.236 --> 00:06:12.270

그런 여인이 상당히 많은 분이 계십니다.

00:06:12.370 --> 00:06:16.786

그렇지만 여러분,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

00:06:16.886 --> 00:06:19.121

화려한 색채의 키스라는 그림이 우리나라에서는

00:06:19.301 --> 00:06:25.952

굉장히 유명하지만 얼마 전에 영화 우먼 인 골드에 주제로 나왔던

00:06:26.052 --> 00:06:31.396

아델레 블로흐 바우어의 초상화 이거는 클림트를 지원했던

00:06:31.496 --> 00:06:38.726

아델레의 모델로서 귀부인을 그려서 초상화를 선물로 준 거죠.

00:06:38.826 --> 00:06:42.855

그런데 이 남편이 그걸 가지고 있다가

00:06:42.955 --> 00:06:47.641

2차 대전 때 나치가 그걸 몰수하게 되죠, 모든 예술품을.

00:06:47.798 --> 00:06:51.084

그러다가 몰수해서 이탈리아 정부가 그걸 갖게 됐는데

00:06:51.184 --> 00:06:55.699

그의 조카가 오스트리아를 떠나서

미국에서 이 사실을 알고

00:06:55.799 --> 00:06:59.990

이 작품을 환수받기 위해서
벌이는 법적 투쟁이

00:07:00.090 --> 00:07:03.742

우리나라에 최근에 개봉했던
우먼 인 골드라는 영화입니다.

00:07:03.842 --> 00:07:07.826

그래서 이 우먼 인 골드가 얼마나
대단한 파워를 과시했냐면

00:07:07.926 --> 00:07:13.030

그 당시 피카소의
파이프를 든 소년 이 그림이

00:07:13.130 --> 00:07:20.090

소더비 경매에서 경매 사상 최고의
호가를 나타낸 그림이었는데

00:07:20.190 --> 00:07:24.393

그거를 뛰어넘었다고 해요,
아텔레 바우어의 초상화가.

00:07:24.418 --> 00:07:30.248

그래서 1억 3천 5백만 달러에
팔림으로써 클림트의 관능의 그림이

00:07:30.348 --> 00:07:33.421

굉장히 사람들에게
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

00:07:33.521 --> 00:07:35.625

이런 그림이었다고 합니다.

00:07:35.725 --> 00:07:41.495

그래서 우리가 사랑의
또 다른 이름은 샹갈이나 피카소나

00:07:41.595 --> 00:07:46.293

이런 화가의 그림에 비해서
클림트의 관능적인 사랑

00:07:46.393 --> 00:07:51.408

이것도 우리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
굉장히 많은 감동을 주고 있다고

00:07:51.508 --> 00:07:52.806

이렇게 이야기합니다.

00:07:52.906 --> 00:07:56.274

그다음에 또 다른 화가
에곤 실레의 에로티시즘에 대해서

00:07:56.374 --> 00:07:58.727

우리가 짚고 넘어가지
않을 수 없는데요.

00:07:58.827 --> 00:08:04.706

2016년도 올해 부산영화제에서
개봉작으로 에곤 실레의 작품이

00:08:04.865 --> 00:08:09.550

오랜만에 영화가 돼서 격찬을
받았던 작품인데요.

00:08:09.650 --> 00:08:16.681

에곤 실레라는 그림은 성, 사랑
이런 거를 굉장히 솔직하게,

00:08:16.781 --> 00:08:18.883

우리 사람들이 많이 포장하잖아요.

00:08:18.983 --> 00:08:22.808

사랑이라든지 인간의 저변에
깔려 있는 성에 대한 욕망

00:08:22.908 --> 00:08:25.563

이런 것들을 클림트는
금색으로 포장하고

00:08:25.663 --> 00:08:29.811

이렇게 많이 포장하는
반면에 에곤 실레는

00:08:29.911 --> 00:08:32.309

그런 포장 대신에 이거를
한 번 비틀어 버려요.

00:08:32.409 --> 00:08:35.129

여러분, 한 번 비틀어
버리면 어때요?

00:08:35.229 --> 00:08:38.797

비틀으로써 본질이 더욱
선명해지는 거잖아요.

00:08:38.897 --> 00:08:41.986

그래서 에곤 실레
그림은 인간의 이중성

00:08:42.086 --> 00:08:45.838

또는 비틀림의 미학이라고
이렇게 이야기합니다.

00:08:46.673 --> 00:08:49.165

그래서 욕망이 그런 그림.

00:08:49.265 --> 00:08:52.076

사랑, 자유, 예술에 미치다.

00:08:52.176 --> 00:08:56.648

에곤 실레 그림을 보면 처음에는
클림트의 그림과 다르게

00:08:56.748 --> 00:08:59.916

굉장히 이게 그림 같지도
않고 낙서 같기도 하고

00:09:00.074 --> 00:09:04.213

성의 없이 그린 그림 같기도 하고
약간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

00:09:04.313 --> 00:09:07.953

너무 노골적인 것 같기도 하고
이래서 기분이 묘합니다마는

00:09:08.053 --> 00:09:11.535

이런 그림에 대한 배경과
그림에 대한 솔직성,

00:09:11.705 --> 00:09:15.115

인간의 본능에 대한 솔직성
이런 것들이 확실하게

00:09:15.215 --> 00:09:18.273

본질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
더 경쾌하게 보이고

00:09:18.373 --> 00:09:20.423

아주 상큼하게 보이기도 합니다.

00:09:20.523 --> 00:09:24.484

그렇지만 이 그림이
우리 청소년에게나

00:09:24.584 --> 00:09:29.308

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
불순하다는 이런 오해,

00:09:29.438 --> 00:09:34.492

작품의 예술성보다는
윤리적, 도덕적 측면에서

00:09:34.592 --> 00:09:37.646

많이 도전을 받고
이렇게 했기 때문에

00:09:37.746 --> 00:09:41.306

한때 감옥에 갇혀서
옥살이를 한 적이 있죠.

00:09:41.406 --> 00:09:45.323

그래서 그의 옥중일기를
보면 애곤 실레라는 사람이

00:09:45.423 --> 00:09:49.156

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
이중성 이런 거에 대해서

00:09:49.256 --> 00:09:51.372
아주 신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

00:09:51.472 --> 00:09:53.600

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볼까요?

00:09:53.700 --> 00:09:55.990

타락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?

00:09:56.090 --> 00:10:00.662

어른들은 그들이 어린아이였을 때

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

00:10:00.762 --> 00:10:04.891

얼마나 성적 충동에 시달렸는지를
잊어버리는 것일까요?

00:10:04.991 --> 00:10:09.649

어른들은 자신들이 어렸을 때
공포스러웠던 욕정이 급습하여

00:10:09.821 --> 00:10:11.883

괴로웠던 기억을 잊어버린 것 같다.

00:10:11.983 --> 00:10:13.576

하지만 나는 잊지 않았다.

00:10:13.736 --> 00:10:16.996

인간은 성에 대한
감각을 잃지 않는 한

00:10:17.096 --> 00:10:20.118

성에 대한 번민으로 괴로워한다.

00:10:20.218 --> 00:10:23.181

인간의 성에 대한
욕망과 갈망과 번민

00:10:23.321 --> 00:10:26.813

이런 것을 아주
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

00:10:26.980 --> 00:10:30.757

어떤 면에서 참 사람을
기분 좋게 하는

00:10:30.857 --> 00:10:33.448

이런 그림이 아닌가
하는 생각이 듭니다.

00:10:33.548 --> 00:10:34.740

여러분은 어떠십니까?

00:10:34.870 --> 00:10:41.152

샤갈이라든지 또 고흐나 고갱
또 잭슨 폴록의 현대적인 그림은요.

00:10:41.252 --> 00:10:45.113

잭슨 폴록의 그림은
대상이 없잖아요.

00:10:45.277 --> 00:10:48.416

그렇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
사람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

00:10:48.585 --> 00:10:52.417

이런 현대 그림의 관념의
그림 이런 것도

00:10:52.547 --> 00:10:55.352

사랑이 바탕이 됐다고 할 수 있고

00:10:55.452 --> 00:10:58.708

그다음에 대표적으로
샤갈은 너무나 선명하게

00:10:58.808 --> 00:11:01.297

우리를 사랑에 대해서 꿈꾸게 하고

00:11:01.397 --> 00:11:08.466

피카소 같은 그림은 사랑에 대한
결실이 모델을 통해서 완성되어가는

00:11:08.566 --> 00:11:12.325

그러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
피카소 같은 이런 사랑도 있지만

00:11:12.425 --> 00:11:18.533

많은 사람이 에곤 실레의 인간의
욕망 저변에 깔려 있는

00:11:18.707 --> 00:11:23.943

타락적인 삶, 번민으로 괴로워하는
인간 본연의 사랑에 대해서도

00:11:24.043 --> 00:11:29.963

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내고 있다는
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.

00:11:30.069 --> 00:11:31.140

여러분은 어떠십니까?

00:11:31.240 --> 00:11:33.579

여러분은 어떤 사랑을
꿈꾸고 계십니까?

00:11:41.830 --> 00:11:46.898

그러면 사랑을 꿈꾸게 하는 힘은
과연 뭘까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.

00:11:46.998 --> 00:11:49.690

여러 가지 접근을
할 수 있겠습니까마는

00:11:49.790 --> 00:11:54.357

스피노자의 에티카를 통해서 한번
네 가지로 정리를 해 봅니다.

00:11:54.457 --> 00:11:59.631

사랑은 외부의 원인에 대한
생각을 수반하는 기쁨이라고

00:11:59.760 --> 00:12:00.935

이렇게 이야기합니다.

00:12:01.035 --> 00:12:04.973

이게 무슨 말이나면 사랑은
내면적인 감정보다는

00:12:05.073 --> 00:12:09.854

외부의 원인에 의해서 남편이
됐든 남자친구가 됐든

00:12:09.954 --> 00:12:13.965

즐거운 일이 됐든 이런
외부의 원인에 의해서

00:12:14.065 --> 00:12:18.196

내 생각에 대해서 기쁨을
수반하는 이런 기쁨이라고

00:12:18.296 --> 00:12:20.909

에티카에서 스피노자는
이야기하고 있습니다.

00:12:21.000 --> 00:12:26.238

그리고 이런 기쁜 감정은 더욱더
큰 완전성으로 이행될 때

00:12:26.338 --> 00:12:27.222

발생하는 감정이다.

00:12:27.322 --> 00:12:28.594

이것이 바로 사랑이다.

00:12:28.694 --> 00:12:31.954

그래서 자신이 사랑으로
인해서 충만해진 느낌이

00:12:32.054 --> 00:12:36.023

바로 사랑이라고 이렇게 스피노자는
이야기하고 있습니다.

00:12:36.123 --> 00:12:42.581

그래서 사랑이 충만해진 느낌은
자신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

00:12:42.681 --> 00:12:45.684

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다.

00:12:45.784 --> 00:12:48.739

이것을 제가 환희라고
이야기했습니다.

00:12:48.839 --> 00:12:53.232

그래서 니체는 이런
환희에 도달하는 것이

00:12:53.396 --> 00:12:56.832

우리 인간 삶의 목표라는
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.

00:12:56.932 --> 00:13:00.724

우리가 살아가면서 완벽하게
충만해질 수 있는

00:13:00.824 --> 00:13:04.252

정말 무중력 상태, 우리
샤갈의 그림에서 본 것처럼

00:13:04.352 --> 00:13:09.692

무중력 상태의 환희에 도달할 수
있는 순간이 얼마나 될까?

00:13:09.792 --> 00:13:14.006
그 순간을 우리가 기대하고
희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들지만

00:13:14.106 --> 00:13:16.390
열심히 살아가지 않는가
하는 생각이 듭니다.

00:13:16.490 --> 00:13:20.616
그래서 사랑이란 함께 있으면
행복해지는 힘이다.

00:13:20.716 --> 00:13:23.343
사랑은 결코 혼자서는
행복해질 수 없는 힘이라고

00:13:23.451 --> 00:13:24.753
이야기할 수 있겠죠.

00:13:24.853 --> 00:13:26.907
그래서 사랑을 원하는가?

00:13:27.007 --> 00:13:27.734
사랑을 하고 싶은가?

00:13:27.834 --> 00:13:30.242
또는 사랑을 느끼고 싶은가?

00:13:30.342 --> 00:13:33.641
또 인생에 충만한 환희를
느끼고 싶은가?

00:13:33.741 --> 00:13:37.570
이럴 때는 함께 있는 분하고
같이 사랑할 수 있는,

00:13:37.670 --> 00:13:40.551
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노력을
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

00:13:40.658 --> 00:13:41.510
생각이 듭니다.

00:13:42.196 --> 00:13:43.090
감사합니다.